

# 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1771곳

### 농관원, 거짓 표시 849곳 형사입건·미표시 922곳 과태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난 1~6월 중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관원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6만 7,052개소)는 전년(8만1,710개소)보다 17.9%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1,771개

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또한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1,771개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거짓 표시'로 형사입건된 849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한 화훼류 수입업체·화훼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에 대한 점검에서는 외계소재거짓 7, 미표시 84)가 적발됐다.

소비자 많은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로 과거 단속이 쉽지 않았던 양념갈비, 특수부위 등도 판매가 신속하게 가능해져, 5~6월 검정키트를 활용한 특별단속으로 위반업체 21개소(거짓표시)를 적발했다.

또한 최근 젊은 층에 인기가 높은 디지털 과자 마카롱, 집밥족 증가에 따른 반찬류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추진해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

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체를 형사입건 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펴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허위표시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 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 전북농협, 모바일 전용 상품 '주머니금융예금' 출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모바일 전용 상품인 '주머니금융예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주머니금융예금은 비대면 일상 이 익숙해진 트렌드에 맞춰 금융 상품에 온라인 쇼핑을 접목해 재미를 더한 금융상품으로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듯, 고객이 금액에 맞춰 주머니와 금리를 골라 쇼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7100만 원의 예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이라면 ▲(접속) NH국민 크나 스마트뱅크에 들어가 ▲(선택 옵션) 1천만 원 주머니 7개와 1백만 원 주머니 1개를 담은 후 ▲(추가 우대) 조건에 맞는 우대금리 쿠폰을 발급받아 적용한 후 가입하면 된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계좌별로 헤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남은 주머니의 잔액에 대해서는 우대금리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어 유연한 자산운용이 가능하다.

농협은 예금 출시를 기념해 7월 31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하며, 상품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대상으로 냉장고와 제습기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농협을 애용하시는 고객들께서 '주머니금융예금'을 통해 보다 재미있고 편리한 혜택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NH 국민크나·스마트뱅크 앱과 스마트상담센터(1600-2800) 및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여름철 기온변화에 대응해 도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가공사업장 등 240여개 계통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식품안전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 식품안전관리 철저, 바른 먹거리 유통 앞장

### 전북농협, 여름철 식품안전 집중 관리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여름철 기온변화에 대응해 도내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가공사업장 등 240여개 계통사업장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식품안전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각 매장별로 식품안전 관리자를 통해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올해는 특히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늦게 온

장마 등 다양한 특수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식품 보관 온도 유지, 유통기한 작업장 위생관리 등 각 매장별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 지도를 강화해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매장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식육종 예방 안내문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농협은 소비자에게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식품부터 과일, 채소,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구입한 식품은 상온에 1시간 이내 두지 말고 즉시 냉장고에 넣기를 안내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안전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여름철 바른 먹거리 유통에 앞장서 고객이 안전한 농산물을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새만금 간척지 풀사로 종자 국내 생산 '가능성 있다'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농가실증 결과 생산량 안정성 확보 허태용 농진청장 "국내 풀사로 종자 자급률 높아질 것"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종자 생산 농가실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안정적인 생산량을 확보함에 따라 풀사로 종자 국내 생산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IRG 파종방법과 적정 질소 시비량 등 다양한 재배법 개선과 종자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가실증시험을 통해 올해 6월, 새만금 간척지에서 헤타르(ha)당 2톤의 종자를 수확했다. 수확량이 관행기술을 적용했을 때(1.9톤)보다 약 9% 증가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9~10월경 새만금 간척지 5공구에 있는 재배지(3.5헥타르)에 '코인어리' 종자(15kg/헥타르)를 점뿌림 방법으로 기계 파종했다. 튼튼한 IRG 이삭을 확보하고, 쓰러짐을 줄이기 위해 질소비료는 관행보다 적은 45kg/헥타르를 뿌렸다. 그 결과, 식물체 키는 74cm 이상 수는 1.083g/m<sup>2</sup>로 확인됐다.

종자 소요량은 2019년 기준 약 6,000톤으로 연간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국내 품종은 약 1800톤(31%)을 차지하며, 대부분 미국 오레곤주에서 생산된 것을 들여온다.

농진청은 내년에도 간척지에서의 농가실증시험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규모 풀사로 종자 생산에 대비해 수확 후 건조 및 정선 기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논둑그루 재배에 적합하도록 겨울철 추위에 잘 견디고 수확기가 빠른 품종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국내 개발 IRG 우량종자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간척지 종자 생산 기술 시범사업과 농가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며 "대규모 IRG 종자 생산 기반이 새만금 간척지에 마련됨으로써 국내 풀사로 종자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할면 새만금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김학두씨는 "새만금 간척지에 풀사로 재종자가 조성됨으로써 국내 IRG 종자 자급률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도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윤상 기자



LX공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도경제진흥심층원,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LX, 지역 중기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 그리티션·서광 등 10곳 참여

LX한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LX)가 전북 중소기업과 함께 경제상생에 앞장섰다.

LX공사는 도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전북도경제진흥심층원,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구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LX공사 본사 사육과 전북개발공사 사육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번 상담회에는 그리티션, 보이고, 서광, 미동체어, 플라즈, 주왕산업, 삼정디씨피, 아큐미디어, 전주오피스, 루미컴 등 전북 지역 1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상담회에서 LX공사와 전북개발공사의 공공구매 담당자들은 중소기업 담당자에게 1대1 상담을 받으며 지역생산품 구매 기여를 약속했다.

곽희도 LX공사 경영지원실장은 "LX공사 등 공공기관이 이번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상담회가 지역 경제 상생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X공사는 지난 1월 사회적 경제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2월 공공기관 합동 마스크 공공구매 상담회, 4. 5월 지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상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 왔다.

/김윤상 기자

### 한전 전북본부, '침수' 익산 전통시장 등에 임시전력 공급

한국전력 전북본부와 익산지사는 지난 6일 집중 호우로 침수된 익산의 재래시장 2곳과 오피스텔 367세대에 신속히 전력을 차단하고 비상 발전차를 투입해 안전 사소를 예방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 익산지사는 이 지역에 3일 동안 약 12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재래시장이 물에 잠기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차단하고 상가마다 방문해 누전차단기를 점검하고 병상 시설에는 임시 전력을 공급했다. 또 수전설이 물에 잠긴 367세대의 오피스텔에는 비상발전차를 이용해 배수펌프에 전력을 공급하고 임시 전력 설비를 설치해 전력을 공급했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있을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발전차를 운영하고 있다"며 "배전 전문 회사와 함께 신속복구 체계를 유지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예비창업 성공률 보장' 경진원, 2기 지식기반 청년 창업 교육생 모집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2기 지식기반 창업교육'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2021년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창업을 개시하는 20~30대 예비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8월 27일(금)까지 2단계에 걸쳐 총 50시간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 필수과정(10시간)은 창업 전반 공통교육(창업절차, 비즈니스모델링 등)으로, 2단계 전문과정(40시간)은 마케팅 교육 및 1:1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과정으로 구성됐다.

한편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1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2,000만원, 2단계 과정 수료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단계 과정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3명을 선발해 각 400만원 정도의 초기 창업비를 지원한다. 창업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사업',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진행하는 혁신형 기술창업 양성 지원사업' 등 연계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도내 만 19~39세 예비창업자는 오는 22일까지 경진원 홈페이지(jbta.kr)나 교육관리시스템(edu.jbta.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분 교육에 관련된 문의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711-2104)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